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3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제2차 태신자 카드 제출

오늘 중으로 서류 완비하여 교구 간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실천의 모범을

이미 보도한 바와같이 오늘은
은 교회 성도가 제2차 태신자 카드
를 제출하는 날이다.

그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
음에 작성했던 태신자 후보들의 이
름, 전화 번호, 주소를 기록 카드에
정확히 작성하여 각 교구 간사들에
게 제출하고, 또 지난 26일 금요일

구역 모임시 구역장들이 작성한 것
도 한 데 모아 오늘 중으로 해당 교
구 간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태신자 카드 기록엔 지난
제1차 때 빠진 성도들도 모두 참여
해야 하며, 작성자의 소속도 반드시
기록해야 업무 처리에 착오가
없게 된다.

우리 모두가 행함 있는 믿음 생
활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서라도 이유와 변명 없는 무조건적
순종의 미덕이 이번 행사에 나타나
기를 기대한다.

사랑부

특수 기관 견학

사랑부(부장 조선근 장로, 지
도 이홍성 목사)는 오는 7월 2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꽃동네를
견학할 예정이다.

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
영되는 사랑부의 교사들은 실질적
인 교회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
여 국가나 사회복지법인단체, 혹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단체
를 대부분 견학하고 있다.

교회 인사

· 김학진 목사(현 제9교구 및 중
등2부 지도)

7월 1일부로 충현교회 부목사직
에서 사임, 동원교회 당회장으로
부임

· 이태규 장로(현 교회 사무국장)
7월 1일부로 충현기도원 총무로
전보

● 목사님 동정 ●

원로목사 자카르타 한인교회 설립기념집회 인도
당회장 미국선교집회 참가 및 부흥회 인도

김창인 원로목사는 오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 한인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집회에서 말씀을 선
포한다.

한편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7
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우리 교회와 형제 교회인 LA충
현선교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

도하고 형제 결연 교회패를 교환
할 예정이다. 이어서 27일부터 8
월 1일까지는 한인세계선교회의
회(준비위원장 이영재 목사) 주최
로 미국 시카고 휘튼대학 빌리 그
래함 센터에서 열리는 제2차 한
인 세계 선교대회에 참가하여 위
크샵을 인도하게 된다.

7월 5일은 맥추감사절

오는 7월 5일(주일)은 맥추감
사절이다.

맥추감사절은 보리 수확을 풍
성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
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다.

비록 보리 수확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보호해주신 하
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
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
도록 다짐하자.

충현프리즘

◎...참으로 오랜
만에 우리 교회당에서
(강남 이전 후 처음)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
합회가 주최한 교사
강습회가 6월 22일부
터 25일까지 모두 4일
동안 개최되었다.

예상 외로 많은 교
사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홍보 부족 탓도
있고, 특히 우리 교회
교사들이 연합 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참여도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하소연이
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 개최를 앞둔
사전 교사들의 실무
교육 수단인 이번 강
습회에 주축측 말로는
참가자가 1천명 안팎
이라는 숫자 때문에
모처럼 알뜰하게 준비
되었던 강습회가 김이
빠졌다는 얘기가.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 내년도 교사 강
습회는 좀 더 활성화
되는 연합 사업이었으
면 좋겠다.

◎...지난 주일 저
녁(6월 21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는 제1
기 충현세계선교연구
원 수료식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교육이
시작되어 1년 과정으
로 진행된 제1기 선교

연구원에는 1백 여명
이 등록하였으며, 이
날 수료자는 73명이
되어 평신도 선교사로
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
사는 권면의 말씀에서
서방 세계 선교뿐 아
니라 사회주의권 선교
내지는 북한 선교에
은 교회 성도가 관심
을 갖고 기도해줄 것
과, 이미 수료된 연구
생들은 기도로 준비하
며 더욱 헌신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날, 수료생
일동은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 선교 사
명 고취와 헌신을 다
짐하기도 하였다.

◎...92년도 오늘
주일로서 6개월을 보
낸다.

전광석화(電光石
火)와 같은 빠른 세월
속에 우리 믿는 자의
결심과 다짐은 얼마나
실현되어 가고 있는
가?

현실에만 만족하여
예수님 재림을 망각하
고 허탄한 생활, 분예
넘치는 호화 사치, 필
요 이상의 평예육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
검할 필요가 있다. 구
속의 사역은 예수님
재림시까지 전개됨을
명심하면서...

카메라 초점



▲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사강습회가 열렸다.



▲ 이 강습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

배가운동

1. 구역장들은 구역별로 모은 태신자 카드를 오늘 교구 간사에게 제출합니다.
2. 카드를 오늘 적어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 전후에 마련된 카드함 속에 제출합니다.
3. 아직까지 태신자를 작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구역 모임때(7월 3일) 다시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이번에 제출한 태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의 배가운동 본부와 교구의 협력과 지도 하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여전도사 청빙

- ① 오정숙 전도사(46세)
충신대학 여교역자 연수원 졸업
- ② 김정숙 전도사(46세)
숙명여대 및 충신대 신대원 연구
과정 졸업
- ③ 김옥운 전도사(39세)
서라벌여대 및 충신대 여교역자

- 연수원 졸업
- ④ 오인숙 전도사(45세)
충신대 신대원 여교역자 연수원
졸업
- ⑤ 윤인숙 전도사(46세)
충신대 신대원 여교역자 연수원
졸업



오정숙 전도사



김정숙 전도사



김옥운 전도사



오인숙 전도사



윤인숙 전도사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팔복(八福) - 2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
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
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1~12)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며, 예수
님을 중심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두
개의 축을 이룹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핵
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
배의 본 고장인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어
떻게 해서 가나안땅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거
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
에 불과할 뿐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실제
(원형)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
건이며, 이는 신약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
심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
건이 그림자(모형)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
자가는 실제(원형)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를 통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 대해 공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
다. 공홀히 여긴다는 것은 제자들이 첫번
째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
문에 자기의 부모님을 닮고 싶어합니다.
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모델이고, 아들
에게는 아버지가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
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런 분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 말
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생활이 밝고
선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이 악
하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보면 신자들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여러 군데로 분
산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
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
다고 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
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는 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조용한 산으로 가서
그곳에다 절을 짓고 아침마다 자기들 나름대
로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합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혹은 경전을 읽으면서 도를 닦습
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
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더러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3. 화평케 하는 열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
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
9)

세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4.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의 열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
게 복이 있나니”(마5:10,11)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한 핍박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과 박해와는 떼 수 없는 관계
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빛인 반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빛을 싫어 합니다.

핍박당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로 인
한 것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경우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살려고 할 때에도 핍박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
으리라”(딤후3:12)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대
로 말하면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경건하
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
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오직 너
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
라”(벧전4:13) 고난은 곧 영광입니다. 이

사람들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은 복음 전파의 동기를 갖게 해

십계명인데,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
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중심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교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5장에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대로 팔복
의 내용 중 3절부터 6절까지는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하여, 7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관
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
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
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세를 가져야 하
며,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자세를 가져
야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에 주
리고 목말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
들은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야 합니다.

1. 공홀의 열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5:7)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홀히 여기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공홀히 여
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
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예수
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 관심
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지 않는

이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
나님께서 우리를 공홀히 여겨주는 것을 일
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과 마찬
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
홀히 여기는 자세,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
가지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갖추어
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공홀
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
로 우리들이 맺어야 할 새 생활의 첫번째
열매입니다.

2. 청결의 열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두번째 열매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놀
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지식이나 머리를 강
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입
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
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눈을 통해 죄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가 모든
것이 그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산업 쓰레기보다
더러운 죄악의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예수
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
일심(一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사
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소라와도 같습니다. 소라
는 자기 껍질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도 자아라는 속에 꼭꼭 갇혀 살아갑니다.
또 인간은 섬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섬과
섬을 연결시키려면 다리를 놓는 방법 밖에
는 없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
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곳마
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이 사회에 평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 있습
니다.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하기 표시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
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일
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
유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제자로서의 합당한 열매 맺어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
하면 천국에 가서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바로 영
광의 보충수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
난을 받으신 분은 틀림없이 영광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2)

하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때 우
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
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
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고,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의 반열에 서
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1:7)

◆ 배가운동 ◆

대신자를 뜨겁게 가슴에 품으며

김은양 집사(제4교구)

강남구 삼성동에서 미용업을 하고 있는 저는 아침 출근 손님부터 저녁 퇴근 손님에 이르기까지 늘 찬송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 9년 동안 신앙 생활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그저 앉으나 서나 하나님만 전하시고 늘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전도를 많이 하셔서 늘 기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아버님을 생각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믿는 자녀의 특권을 나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쉽고 벽차서 특히 학생들에게 열심히 전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올해 배가 전도 운동을 하고 이를 위해서 주위의 대신자들을 작정해서 내라는 교구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

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선 열다섯명의 대신자들을 적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의 몇 명이 벌써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해드리면서 온갖 세상 고초의 어려움을 상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은혜를 전하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같이 풍요롭고 평화로움을 전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피곤하지 않음을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 때

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설교를 좀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새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전하지 못해도 생활 가운데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얻음이 천하를 얻음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항상 전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 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전도의 상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열고 우리들을 반기시어 "착하고 착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참 잘했구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힘에 힘을 더하여 독수리의 날개에 하나님의 말씀의 패를 달아 멀리 휴전선 넘어 공산치하에서 허덕이는 사랑하는 동포에게도 전도하며 찬송합시다.

금 주의 기도 제 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봉사과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외 집회를 인도하게 하시며,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역량을 더하여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선교).
5. 총현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자, 물자, 재정을 허락하여주소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7.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8. 각 교구가 부흥하게 하소서.

· 제2교구: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고 금요찬양과 기도회 적극 참여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소서. ② 교구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에 힘써 때가 되게 하소서.

· 제3교구:① 연말까지 착가정이 없어지게 하소서. ② 구역마다 기도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 제4교구: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난이 해결되게 하소서.

· 제5교구:구역마다, 전도회마다 활성화 되도록 말씀 찬양, 성령 찬양, 기도 찬양하게 하소서.

· 제6교구:① 교구의 각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개인마다, 구역마다 함께 전도하여 교구가 배가 부흥되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 주님을 위해 힘있게 일하게 하소서.

· 제7교구:① 교구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전도에 열심을 갖게 하소서.

· 제8교구:① 각종 예배 및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 교구 일꾼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더욱 충성하게 하소서.

· 제9교구:① 성령 충만받고 능력있게 일하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 축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제10교구:① 교구 배가를 위하여 빠짐없이 대신자를 작성하게 하소서. ② 주일성수하게 하소서.

· 제11교구:강동구역의 임페 아파트 거주 성도들의 무사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소서(8세대).

· 제12교구:① 가족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개인마다, 구역마다 함께 전도하여 배가로 속히 부흥되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소서.

· 제13교구:① 구역마다 기도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② 모든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제14교구:① 중국에 거주하는 성도가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 성도들이 힘

을 내어 구역이 배가되게 하소서. ② 용산구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소서.

· 제15교구:① 금요찬양집회에 참여하는 자마다 은혜받게 하소서. ② 사업하는 자마다 형통하게 하소서.

· 제16교구:① 교구 일꾼들이 열심히 모여 성령 충만받고, 흠뻑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② 성도들의 생업에 축복하소서.

· 제17교구:① 금요찬양집회에 참여하여 능력받고 배가 전도하게 하소서. ②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 제18교구:① 일천명이 예배 출석하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 교구 식구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③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낮게 하소서.

· 제1교구:박계녀 원사, 고득순 성도, 홍순철 성도, 장성준 집사, 안정순 집사

· 제2교구:서경태 성도, 신준범 성도, 송원식 성도, 여정호 원사, 이용 성도, 한희숙 성도, 이봉남 원사, 이금란 원사

· 제3교구:최규 집사, 고윤희 집사, 김계원 성도, 임정수 성도, 이문희 성도, 유태실 성도, 허정화 성도, 유길준 성도, 모찬, 정영현 집사, 창세훈 집사, 한운석 집사

· 제4교구:홍계순 권찰, 박정란 집사, 고현정 성도, 김태성 성도, 이종성 성도, 한숙 성도, 이종택 집사, 오범규 성도, 목판호 성도

· 제5교구:박정식 성도, 박전엽 원사, 최숙진 집사, 박대화 집사, 우선비 원사

· 제6교구:김영진 집사, 손무길 성도, 김영남 성도, 김주홍 성도, 이진태 원사, 강현자 집사, 유근임 집사, 이금희 성도, 김홍래 집사, 김기녀 원사

· 제8교구:이상호 성도, 박치주 원사, 경홍옥 원사, 전신덕 원사, 김연규 성도

· 제9교구:박옥란 성도, 최금자 성도, 양홍진 성도, 차병석 어린이

· 제10교구:장성남 성도, 정영숙 집사, 최종환 성도, 박대호 어린이

· 제11교구:지명숙 성도, 조성만 성도, 조성철 성도, 안정자 집사, 한금례 집사, 김원철 성도, 이수원 성도, 최상은 성도

· 제12교구:남매에 성도.

· 제13교구:박윤익 원사, 장성규 성도.

· 제14교구:마해해 집사, 홍화범 원사, 임정숙 권찰, 정미자 성도, 석덕자 권찰, 심영순 집사, 이종현 성도

· 제15교구:황광자 집사, 이선영 학생

· 제16교구:이영주 원사, 박상옥 어린이

· 제17교구:최정자 성도, 최현자 성도, 조영금 원사, 유수진 성도, 정동훈 집사

· 제18교구:김유경 어린이, 최현진 어린이, 박도승 성도, 장영자 성도, 장세복 구역장, 옥재현 성도, 김순자 구역장, 유금순 성도, 정동우 성도

장로칼럼

믿음직한 청지기

김영길 장로(회계부장)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한 맺힌 날이다.

휴전 이후 총현교회가 세워진 지도 39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선두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헌신 봉사함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심은 주님의 깊은 뜻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는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필수적인 사명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정성껏 관리하고 보존하자.

많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다. 관리자는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 헌금도 맡겨주신 재물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정성껏 바쳐야 된다. 많이 바치는 자나, 적게 바치는 자도 모두 정성어린 마음으로 바쳐야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으니, 이는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사사로운 과욕을 지킴이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보관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한다면 충성스러운 종이라 기뻐하실 것이다.

둘째로, 교회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의 총현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금과, 시간을 바쳤는지 거론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바이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정성을 다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지금 모습 그대로 물려 주어야 한다. 모든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우리들이 정성을 쏟으면 잘 보존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방관하면 파손될 수 있다.

셋째로, 음식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매주 식당에 대해가보면 때마다 남은 국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신의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져간다면 아낄 수 있는데, 무조건 많이 가져가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순서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적으로 한 해 동안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 돈이면 요즘 논란되는 경부고속전철의 건설비와 맞먹는 금액이다.

수도 서울에서 85년도에는 음식쓰레기가 1만1천톤이었던 것이 6년후인 91년도에는 2만5천톤으로 늘어났다. 인구가 6년 동안 두 배 증가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식욕이 왕성한 것도 아니다. 왕성했다면 너무나 할 것없는 무절제와 사치, 낭비뿐이다. 6·25동란 중에 피곤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아 이만큼 되었다고 음식을 낭비한다면 버려진 음식물이 통곡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 50억 인구 중 20퍼센트 정도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톨의 밥알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가정, 직장, 교회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

너희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주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되고 하나님께 믿음직한 청지기라 되자.

다음호 칼럼은 윤광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중헌논단 ◀

현대인의 신앙 생활(2)



김자생 장로
(인사위원)

- I. 삶의 최고 가치관
- II. 새로운 가치관을 위한 결단
- III. 기복 신앙, 불건전한 성령 운동
- IV. 사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조화

III. 기복 신앙, 불건전한 성령 운동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또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죽음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면해주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테니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나 오늘날의 축복은 ‘새 생명’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의미한다. 병이 나음을 받는다는 ‘축복 성회’라는 이름의 집회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부흥사의 집회가 전국에서 성행한다. 전국에서만 아니라 미국이나 소련을 막론하고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행하고 있다. “나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달라”는 축복기도를 원하는 교인들이 이들을 따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다. 축복이 있는 곳이라면 여름철에 파리가 먹이의 냄새를 맡고 날아들듯 모이는 것이다.

기복 신앙은 원시종교인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당들이 하는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행위이다.

물론 우리가 현세의 축복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썩어져버릴 현세의 축복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어떤 신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이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새벽기도회에 나온 교인들의 개인 기도를 몰래 녹음을 한 일이 있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가족의 건강, 남

편의 승진, 사업의 번창, 자식의 대학 합격’ 등 일신상의 기복적인 기도였다고 한다. 물론 장사가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는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에 기도의 내용이 집약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내 남편이 오늘 하루도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웃과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결집로 가지 않도록 보살펴주시고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용지를 품고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소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도 일찍부터 알게 해 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국가 경제가 바로 되고, 정치가 바로 되며, 남북 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고, 이웃과 이웃이 사랑하고, 정의 사회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주소서. . . .” 기도할 제목이 너무도 많다. 민족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새벽 제단을 지킨다는 긍지도 없이 자신의 복만 빌다는 것이 오늘의 새벽기도나 철야기도의 풍토라고 젊은 신학도들은 탄식했다고 한다.

기복 신앙은 결국 이 사회에 이기심을 조장시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 기복 신앙은 결국 무속 원시신앙으로 타락하여 불건전한 신비주의 성령 운동과 결탁하게 하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건전한 신앙 생활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

요즘 건전한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을 유혹하여 소위 “예언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 들린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의 장래일에 대하여 예언을 한다는 것이다. 성령이니 예언이니 하는 말만 다를 뿐이고 무당에게 점을 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복채라는 말 대신에 현금이라는 말로 돈을 받는 것도 무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30년 이상의 교회 생활을 한 어느 권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예언점이 잘 맞는다고 칭찬을 하고

있었다.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모두 고침을 받는다고 과대 선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언까지 세워서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 지금 밖에 나가면 금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설교한다. 그리고 말세를 내세우고 많은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 모양의 사이비 집단이 성령 운동을 빙자해서 교인들을 유혹한다. 이것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는 초창기에 사경회라는 것이 일년에 봄, 가을 두 차례가 있었다. 평소 배우지 못했던 성경 지식을 이 사경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때는 부흥회라는 것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회가 있어 교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깨우치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한다.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바른 신앙을 배우는 대신 감성을 통해서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성경이라는 자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재어 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의 근본 지식이 없는 교인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성경을 통한 신앙 훈련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회 부흥의 원리도 이런 정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교회의 예배당에는 일체의 장식

물이 없다. 심지어 강단 위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근처에 와서 한국 교회에서는 강단을 천주교회의 강단처럼 장식을 하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신년 촛불예배를 드리는 천주교회의 미사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 원리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IV. 사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조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사회를 외면하고 혼자만 살 수 없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다. 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사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조화를 이루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혼잡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했지

만, 오늘날에는 역사의 현장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그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자기 극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앙 생활이 더욱 어려울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군락을 이루고 살기도 했다. 그리고 원시시대에도 신앙 생활과 일상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야말로 다변화 사회이다. 종교도, 이데올로기도 다원화 현상을 이루고 있다. 이 다원화 사회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설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사회 참여”라고 한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이 있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일원이다.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기독교적인 역사 해석의 법칙에 따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일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사상과 생각이 같은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회 운동도 전개할 수 있다. 통일 운동도 할 수 있고, 통일을 대비하고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에 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단체나 운동이 반 기독교적이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하는 운동이나 활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성로마제국이 비록 천국이 아니었지만 이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볼만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에 나라를 세울 때 스스로 정한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어 신대륙으로 옮겨오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때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교 분리를 헌법에 명문화해서 명시했던 것이다. 정치도 교회를 간섭하지 말고, 교회도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틀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퓨리탄이 세운 나라이다. 그 퓨리탄 정신이 2백년 동안 이어져왔다. 오늘날까지 역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리스찬이었다. 그들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대통령을 표방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비록 기독교 국가를 표방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서 정적과 신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펼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의지를 불태워 볼 만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확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사의 정신적인 골격이 될 수 있도록 민족의 지도력이 집중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서 대통령을 뽑고 그를 중심으로 우리의 이상을 펴볼 만하지 않겠는가!

성경 공부 통한 바른 신앙 생활을 교회 부흥의 원리로 삼아야